



## 푸른하늘을 향한 645번째 희망의 종이학

— 희망의 종이학 전국 순회의 기록

/ 박기홍 청년초록네트워크 대표

## 〈희망의 종이학 프로젝트〉를 시작하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 보이에 피폭당한 수십만 명의 사람들 중에는 만 두 살의 사사키 사다코가 있었다. 사다코는 10년 후 백혈병 진단을 받아 적십자병원에 입원했고, 종이학 천 마리를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건강의 회복을 기원하는 종이학을 접기 시작했다. 사다코의 종이학은 644개에서 멈추었고, 안타깝게도 소원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 이후로 사다코의 종이학은 탈핵과 평화의 상징이 되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8월이 돌아왔고, 사다코의 종이학을 기억하며 탈핵과 평화를 위한 645번째 종이학을 접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희망의 종이학 프로젝트〉는 핵산업의 확장으로 인한 피해가 집중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핵산업 피해자들과 핵산업에 맞서 투쟁하는 이들의 탈핵과 평화를 향한 염원을 연결하고자 했다. 더불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으로 희생된 수십만 명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지금까지도 고통 받고 있는 피폭자들을 기억하고 알려내는 것 또한 잊지 않고자 했다.

〈희망의 종이학 프로젝트〉는 모두 세 개의 개별 프로젝트로 구성되었다.

먼저, 한국의 밀양, 청도, 기장, 합천의 핵산업 피해 주민들과 피폭자들을 찾아 연대의 뜻을 전하는 〈희망의 종이학 전국 순회〉를 진행했다. 그리고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떨어진 8월 6일에 맞추어 일본

의 피폭2사회가 진행하는 ‘푸른하늘(靑空: 아오조라) 식전’에 참가하고, 주변의 탈핵-반전 투쟁 지역의 주민들과 연대하기 위해 <푸른하늘 사절단>을 일본에 보냈다. 마지막으로 8월 6일에 맞추어 서울에서 <푸른하늘 공동행동>을 개최했다.

전국의 핵산업의 피해 지역을 돌며 종이학을 함께 접다.

<희망의 종이학 전국 순회>는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되었다. 서울에서 출발한 10여 명의 참가자는 첫째 날 밀양에 도



행정대집행 현장에 건설된 765kv송전탑

착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주민들은 지난 수년 동안 이어진 공권력의 폭력, 공동체의 파괴 등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이후 주민들과 함께 평발마을로 이동해, 작년 겨울 송전 이후 평발마을 주민들을 소음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하고 있는 765kv송전탑을 직접 보기도 했다.

둘째 날에는 부산으로 이동해, 기장에서 담수화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 기장성공회교회 신부, 기장군의회 의원, 기장해수담수화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부산시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14년 말 일방적으로 고리/신고리 핵발전소 밀집 지역으로부터 채 1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담수화 시설에서 처리하는 수돗물을 기장군과 부산시 일부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담수화 시설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의 안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담수 공급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지금까지 담수 공급을 막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었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그리고 담수화 시설 건설과 운영에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에 대항하여 진행한 약 1년 반의 투쟁의 기록을 전해 듣고, 이후 부산과 울산에 걸쳐 있는 고리/신고리 핵발전소를 직접 답사했다. 답사에서는 노후 원전 폐쇄 운동의 성과로 첫 번째 폐로가 결정된 고리 1호기, 밀양-청도의 765kv 송전탑과 연결되어 있는 신고리 3, 4 호기 그리고 최근 원안위에서 승인된 신고리 핵발전소 5, 6호기 부지도 직접 볼 수 있었다.

오후에는 부산YMCA 강당에서 진행된 탈핵만민공동회에 참석해, 고리 1호기 폐쇄 이후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투쟁을 결의하는 수많은 지역 주민들과 활동가들의 의지를 확인했다. 탈핵만민공동회가 끝난 이후, 참가자들과 부산역까지 함께 행진하며 탈핵의 목소리를 함께 드높였다.

마지막 날 일정은 합천에서 진행되었다. 합천은 1945년 8월 히로



피폭1세이자 원폭피해자협회 합천 지부장인 심진태 님

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피폭된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다. 참가단은 합천 평화의 집에서 피폭 1세이자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 지부장인 심진태 님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국에서조차 잘 알려지지 못해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원폭 피해자들의 현실과 이에 맞서는 투쟁의 기록을 전해 듣고, 올해 5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원폭피해자특별법」의 한계와 원폭피해자협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특별법 개정 운동의 방향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원폭피해자협회에서는 지원 대상에 피폭 2, 3세가 제외된 것과 피폭 1세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제외된 것을 비판하며 개정운동을 준비 중이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 피폭자 100여 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합천 원폭복지관을 방문하여 피폭자들을 직접 뵙고 연대의 인사를 나누었



한국인 원폭피해자위령비 앞에서 묵념하고 있는 전국 순회단

다. 이후 복지관 뒤에 조그맣게 마련되어 있는 위령비 앞에서 추모의 의미로 묵념을 진행하며 전국 순회 프로그램은 끝이 났다.

### 우리의 투쟁은 연결되어 있다

밀양, 청도, 기장, 합천에서 만나 이들은 모두 핵산업의 위험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고, 핵산업의 점진적인 혹은 즉각적인 중단과 폐기에도 뜻을 모았다. 더불어 모든 지역의 주민들은 서로의 투쟁이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로 신고리 3, 4호기와 밀양과 청도의 송진탑은 연결되어 있었고, 기장의 담수화 시설은 신고리 3, 4호기 건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소위 ‘스마트원전 수출’

계획의 일환이었다. 합천의 한국인 피폭자들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소수만의 이윤을 위한 핵발전 정책에 희생되는 수많은 주민에 대한 태도와도 맞닿아 있었다. 서로의 투쟁이 연결되어 있는 만큼, 각지의 주민들은 서로에게 연대의 마음을 기꺼이 내어주었다.

2박 3일간의 간담회와 견학을 진행하며 주민들로부터 가장 자주 들었던 이름은 ‘성주’였다. 주민들은 모두 사드 배치 반대 투쟁을 진행 중인 인근 성주 지역의 주민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 비민주적 절차와 국가폭력에 맞서는 성주 주민들에 공감한다며 연대해야 함을 강조했다. 다른 지역의, 다른 맥락의 피해라고도 인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일처럼 공감하는 모습은 연대의 의미와 가능성에 대해 다시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주민들은 언제나 마지막으로 탈핵과 평화를 위해 더 많은 이들이 연결되어 함께 싸워 나가야 한다는 <희망의 종이학 프로젝트>의 취지에 동감한다며, 서울 대회가 성사되기를 빌었고, 방사능 유출로 인해 위협할 수 있는 일본에 조심하여 다녀오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주민들의 따뜻한 응원으로 <희망의 종이학 프로젝트>는 힘차게 다음 프로젝트를 향해 달려갈 수 있었다. **“조교”**